

3주차

근대 여성 지식인의 문학(1), 최정희

장영은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최정희의 성장

- 수업 시대
- 삼천리사의 여기자
- 여인문예가클럽 구상

02. 최정희의 글쓰기와 사회 참여

- 신건설사 사건과 그 이후
- ‘삼맥’ 시리즈
- 조선임전보국단 간사
- 해방 후의 최정희

03. 최정희의 현실 인식

- ‘옛벗 지하련 보오’
- 소설 《인간사》와 전향
- 부끄럽지 않은 소설 쓰기

2차시

최정희의 글쓰기와 사회 참여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신건설사 사건을 계기로 최정희가 작가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식민지 시기 최정희의 작품 활동과 사회 참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신건설사 사건과 그 이후
- ‘삼맥’ 시리즈
- 조선임전보국단 간사
- 해방 후의 최정희

신건설사 사건과 그 이후

신건설사 사건

- ‘제2차 카프(KAPF) 검거 사건’
- 전북경찰서 고등계 ‘극단 신건설’ 회원 70여 명 체포
- 극단 신건설의 연극 <서부 전선 이상 없다> 순회 공연 중 발생
- 원작자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(Erich Maria Remarque)의 반전(反戰) 사상

‘신건설사 사건’에 대한 최정희의 회고

- 일관되게 ‘사상적 결백’을 주장했으나 구속되었음
- 일본의 사회주의 작가 아리시마 다케오(有島武郎)의 소설을 읽은 것이 구속 원인

최정희, <문학적 자서>

- “남들은 내가 기자 노릇을 시작하면서 문학을 한 것 같이 알지만 실상 내가 문학을 하게 된 것은 그 뒤 썩 지나서 전주 감옥에 가 있을 무렵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.”

최정희, <문학적 자서>

- “가슴의 피가 딱 멈추는 것 같았다.”

최정희, <문학적 자서>

- “너는 문학을 해야 할 여자다.”

최정희, <문학적 자서>

- “너를 구원할 길은 문학밖에 없다.”

출옥 이후의 생활

- 조선일보 출판부 입사 및 퇴사
- 잦은 이직으로 불안정한 생활

불안정한 생활 속에 발표한 소설

- <휴가>(1937)
- <정적기>(1938)

‘삼맥’ 시리즈

‘삼맥’ 시리즈

- 결혼한 여성의 삶을 그림
 - 1939년 <지맥(地脈)>
 - 1940년 <인맥(人脈)>
 - 1941년 <천맥(天脈)>



천맥

‘삼맥’ 시리즈의 집필에 대한 회고 (최정희, <문학적 자서>)

- “이 소설들을 쓸 무렵엔 문학이 어려운 줄을 몰랐다.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.”

‘삼맥’ 시리즈의 집필에 대한 회고 (최정희, <문학적 자서>)

소설 <인맥>

- 소설의 모델 ‘북으로 넘어간 M씨를 매우 사모하던 마산 여인’
- 친한 친구 혜봉의 남편 허윤을 보고 사랑에 빠진 선영

소설 <인맥>

- “정숙치 못한 여자라고 꾸짖어도 좋습니다.”

최정희가 던진 질문

- “진정한 사랑은 사회적 윤리를 넘어서는가?”
- “사회적 윤리가 진정한 사랑을 유지시킬 수 있는가?”

문제 제기

- “전국적으로 적지 않은 숫자에 달하고 있는 그들 사생아, 그들은 언제까지 사회의 냉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가?”

<지맥>의 지식인 여성 '은영'의 삶

- 여성의 사랑과 모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

<지맥>의 지식인 여성 '은영'의 삶

- 최정희의 '불행한 사랑을 애호하는 취미'
→ '진실한 자서전을 쓴 여성'(버지니아 울프)

<지맥>의 지식인 여성 '은영'의 삶

- “가난하고 평탄치 못한 길을 걸어오면서...

나를 구원할 자는 하느님도, 부처님도, 마리아도 아니고 나 자신임을 안 것뿐이다.”

조선임전보국단 간사

조선임전보국단

- 김동환의 주도로 결성된 친일단체
- 목적 ‘황민화 사상 통일 및 전시하의 국책 협력’



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(1941.10.22)

조선임전보국단 활동

- 1941. 12. 14 ‘미영 타도 대강연회’(부민관)
 - 김동환, 이광수, 이돈화, 이성환, 주요한 등 참석
- 1941. 12. 27 ‘결전부인대회’(부민관)
 - 김활란, 모윤숙, 박순천, 박인덕, 임효정, 최정희 등 참석
 - 황민 의식 고취, 군수 자재 헌납 운동 전개

조선임전보국단 활동

- 1942년 2월, 임전보국단부인대 주최
근로보국운동 전개
 - 부녀층을 동원한 군복수리작업

조선임전보국단 활동

- 최정희의 친일적인 연설 및 문필 활동
 - 〈군국의 어머니〉
 - 〈문사부대와 지원병〉
 - 〈지원병 훈련소의 1일〉

해방 후의 최정희

1948년

- 반민족행위특별조사 위원회 설치
- 김동환 반민특위법으로 기소



1949년 반민특위 재판 광경

전쟁과 생존

- 1950년
 - 한국전쟁 중 김동환 납북
 - 인민군 치하의 서울에서 문학가동맹 가입한 최정희
- 1951년
 - 종군작가단 종군기자로 활약하며 반공주의 찬양

학습정리

- 신건설사 사건으로 투옥된 최정희가 작가로서의 운명을 눈뜨게 됨
- 일제 말기 친일 협력, 해방기,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순응하는 과정

다음 차시에서는

- 최정희의 현실 인식

[출처01] e뮤지엄(<http://www.emuseum.go.kr>),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(소장품번호 한기769)

[출처02] 《매일신보》 1941년 10월 23일자 2면

[출처03] Wikimedia Commons

<https://commons.wikimedia.org/wiki/File:%EB%B0%98%EB%AF%BC%ED%8A%B9%EC%9C%84.jpg>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